<B> 로마로의 여정② 유라굴로 광풍

a.출항

사도행전 27장 9-13절 말씀

<1>출항 전: 바울 vs 백부장, 선장, 선주, 사람들

09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10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11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12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뵈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뵈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2>출항

13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b.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다

사도행전 27장 14-19절 말씀

광풍을 만나 표류하다

14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15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16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17 끌어 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짐들을 바다에 버리다

18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 버리고
19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